



수상

중정부 외국인 최고 우의상 받아



金容珍('75· 모교 소아흉부외과 교수): 최근 중국 중앙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'우의상'을 받았다. 우의상은

문화, 교육 및 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외국인 경영자 또는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중국 최고 권위의 상이다.

김 교수는 2000년부터 연변, 하얼빈 등에서 3000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선천성 심장질환아들을 수술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9월 우의상 수여를 결정했다.

www.snumd.net